

[‘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]

[트위터](#) [페이스북](#) [미투데이](#) [싸이월드공감](#)

입력일 2012.11.13 09:59 | 수정일 2012.11.13 10:16

코메디닷컴은 지난 9월 26일 “주요 간부 줄사표…보건연에 무슨 일이”제목의 보도에서 이선희 2대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취임한 후 주요 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, 비위 간부 파면,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등과 관련한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.

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황 모 간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.

한편 연구원은 “회사를 그만둔 보직자 중 일부는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사했고 나머지는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이며, 현재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결과는 내년 초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”라고 알려왔습니다. 또한 연구원은 “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직은 공채를 통해 정규 채용했다”라고 밝혀왔습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저작권© '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' 코메디닷컴(<http://www.kormedi.com>) /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

여성불감증에 대한 어느 여성의 충격 고백...

지금 남편과 사귀지 몇 달 만에 결혼하여 얼마 전에 관계를 갖게 된 새 신부 박연경(27, 가명)씨는 요새 밤만 되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. 바로 부부관계 때문이다. 사귀지 얼마 되지 않아

ADVERTISEMENT

[AD 광고]